

# 이 비밀이 크도다

This Is a Profound Mystery

요한일서 1:1-3; 에베소서 5:31-32; 고린도전서 10:16-17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2월 6일 설교 (성찬식)

<sup>1</sup>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sup>2</sup>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의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sup>3</sup>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sup>31</sup>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sup>32</sup>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sup>16</sup>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sup>17</sup>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 신비주의

신비주의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영어로는 미스틱시즘 (mysticism)이라 하는데, 사람이 어떤 신적인 존재와 교감을 나눌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런 교감을 직접 경험해 보고자 하는 사상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를 믿거나 실천하는 사람을 신비주의자, 영어로 미스틱이라 합니다. Mystic, CT이 아니고 그냥 Mystic입니다. 종교학을 연구하다 보면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 종교 안에 신비주의적인 분파가 있습니다. 힌두교에는 베단타, 유대교에는 카발라, 이슬람에는 수피즘이 있고 불교나 도교에도 비슷한 분파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영원한 진리인데,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한 참 종교인데, 다른 종교에 있는 경향이 기독교에도 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별 다를 게 없다는 말이 아니고 신비주의는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비주의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있는 곳은 어디나, 참 진리든 모양만 진리든, 이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감을 나누려는 이런 본성이 사람에게 왜 있는지 그건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뭘니까? 지난 주에 살폈지요. 함께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어야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 1:1). 성부, 성자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도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인 이상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고 싶은 경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방식도 비슷합니다. 참 종교든 거짓 종교든 똑같은 본성에서 나오는 거라 방법도 비슷합니다. 우선 속세를 떠나야 됩니다. 죄가 뭘지 잘 모르는 사람도 세상에 문제가 있는 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세상살이에 휩싸이면 신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떠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으로 가거나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골방에라도 틀어박혀야 됩니다. 처자식 거느리고 득도가 안 되니 당연히 독신이라야 되겠지요? 그런 다음 기도나 명상을 통해 비워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 쾌락욕, 재물욕, 명예욕,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 이런 걸 다 버려야 됩니다. 기도나 명상만 갖고는 안 되니 고행도 필요합니다. 몸을 아프고 괴롭게 만들어 그런 욕심을 쫓아내려는 거지요. 그런 다음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신적인 존재에 집중하고 그런 분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오래 애쓰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황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 숨은 위험

교회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 체험 또는 신비체험이라 하지요. 십년 이십년 그런 체험을 갈망하며 훈련한 결과 어느 날 갑자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밝은 빛을 보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뜨거운 기운이 몸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다는 사람도 있고, 제 몸이 신과 직접 한 덩어리가 되는 경험을 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성경 대신 불경을 묵상한 것만 다르지 고행도 하고 마음을 절대자에게만 집중했더니 밝은 빛도 보고, 어떤 힘이나 기를 체험하기도 하고, 해탈을 경험하거나 어떤 우주적인 절대자와 합체가 되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슬람이나 유대교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깊은 세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했다는 사람이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 나름대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에 관계없이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들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경험이라는 현상은 비단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에도 관심을 갖고 배울 건 배워야 된다 합니다. 지난 세기 기독교 영성가로 이름난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다른 종교인들의 이런 영적 경험을 많이 배워 책까지 썼습니다. 특히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 선불교의 지도자 격인 다이세츠 수주키나 티베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깊은 교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참 멋있어 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배운다, 얼마나 겸허한 자세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영적 현상이 있으니 서로 교류하면서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참 아름다운, 구도자답고, 종교인다운 자세 아니겠습니까?

## 바른 방법

그렇지만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속 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적 현상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 합니다. 기적 같은 능력도 나타난다 합니다. 거짓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 현상이 있으니 있다 하는 거겠지요. 하지만 그런 현상이 과연 진짜 영적 현상,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일으키시는 현상이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을 받으신 다음 성부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가 계시지 않는 곳, 주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현상은 있겠지요. 참 영이 아닌 잡다한 영은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빛도 보여주고 몸을 공중에 붕 띄워주기도 하고 온 우주와 한 몸이 되는 경험도 하게 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건 참 경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험했다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일 4:1-3).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지난 주에 살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21).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역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함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둘을 만드신 다음 둘이 하나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갖가지 벽을 만들어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 예수를 보내 그 모든 장벽을 없애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 우리의 연합

오늘 첫 본문이 그것을 다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성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태초부터 계셨으니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원의 세계에 계시다가 시간 안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셔서 사도들이 먼저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귀는 겁니까? 한자로 친교, 교제라 하지요? 원문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성도의 교통입니다. 하나가 된 거지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난 주님 안에 있게 되어 모든 죄를 씻고 모든 장벽을 허물고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귀려고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 먼저 와 있던 사람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 너와 나, 우리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가 된 우리 모두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 지난 주일에도 살폈습니다. 사람이 홀로 완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일 때 가장 하나님을 닮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처럼 온전한 하나 됨을 이룬 그런 사람이 되면, 다시 말해 우리가 참 성도의 교통을 나누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동시에 우리 주님과도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거지요. 옛날 혼자였던 아담이 하와와 하나가 된 그 비밀, 그러니까 둘이었다가 하나가 된 그 비밀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지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 성찬식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은 주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의식입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마셔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그와 함께 이 성찬은 하나가 되는 의식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의식이면서 또 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주 예수와 하나가 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귄을 나누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주 예수와 사귄을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연합이지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연합이니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참여한다는 말은 원문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귄다는 말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서로 사귀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주님과 사귄니다. 성찬이 뭐기에 이런 사귄이 가능합니까? 성찬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바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어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혼자 있는 세월을 끝내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찬은 우리가 다 주 예수 안에서 사람다운 사람,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한 사람이 되는 시간이요, 우리가 다 함께 우리 구주이신 주 예수와 사귀고 하나로 연합하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 신비주의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꿈꾸는 일,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성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수도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고행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식구들 때문에, 부딪치고 싸우고 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다 그만두고 십 년 이십 년 고행하고도 닦은 사람들이 평생 한 번 맛볼까 말까 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일상생활처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갈망하는 것이 신비주의라면 우리가 알고 믿는 복음은 아주 신비주의적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했지요? 비밀이라는 말의 원문이 뮈스테리온, 곧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신비주의라는 말이 이 말에서 왔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다 신비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성도의 교통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며 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 또 이렇게 두 달에 한 번 성찬을 통해 우리 서로가 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20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런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는 주님과 합체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영성을 자랑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느니 저런 황홀경을 맛보았느니 하는 사람들한테 기죽을 것도 없고 그런 걸 비밀로 스님이나 라바이랑 우아하게 사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며 우리를 또 하나님과 하나로 엮어 주십니다. 축도할 때마다 나오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바로 그겁니다 (고후 13:13).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비밀입니다. 큰 비밀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그런 하나 됨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나도 남 부럽지 않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